

듣·보·잡
듣기를 보면서 잡는다

검토자 서평 (2017학년도 수험생)

다른 책과 달리 학력이 좋고, 실력이 뛰어난 검토진을 뽑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하위권을 위한 책이므로 중·하위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SKY 재학생, 의대생들이 검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직접 검토해서 주는 피드백을 받으면 더욱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고 실제로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쁜 수험 생활에도 가까이 검토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 지 / 홍익대 1학년 / 반수생

제가 틀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ㅎㅎ 듣긴 들었지만 미처 답을 고르기도 전에 다음 문제가 시작되고, 듣기가 모두 끝난 뒤 그 문제에 돌아와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오답을 찍는..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만 보고 싶지만.. 책이 나오면 듣기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네요.

권성현 / 고3 / 대건고등학교

책 앞부분인 친해지기를 통해 책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듣기 책들은 그냥 문제 풀고 디테이션 하고, 문제 풀고 디테이션 하는 책인데 듣기 개념서라니 새롭게 느껴졌네요. 듣기가 힘든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 독학

틀려도 왜 틀렸는지 논리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읽으면 당연히 답이니까 '그렇구나.'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책은 틀리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핵 공감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해설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절하고 쉬웠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보고 이해 가능한 것 같아요.

홍재현 / 독학

수능 영어 듣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막연함'일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될 때까지 듣고 따라 써라 라는 말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수능 영어 듣기 공부의 '막연함'을 없애주는 책입니다. 수능 영어 듣기에서 5개정도 틀리는 학생, 수능 영어 듣기의 '막연함'을 떨쳐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김호연 / 독학

몇 개의 단원을 검토해 보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자가 어떤 전략을 각 단원마다 배치해 놓았는지 궁금해 구입하고 싶은 책입니다.

백지현 / 독학

저자가 학생들과 소통하려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는 것, 정말 큰 장점이야 생각해요. 또 친근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과외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듣기 기출문제는 혼자 공부하면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풀고 답 체크하고 해설 읽는 게 전부 아닌 문제 자체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준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김대운 / 독학

재수할 때 듣기가 매우 고민이어서 연계교재를 4~5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문장 몇 개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만큼 공부했지만 수능에서 2개를 틀렸죠. 이후, 듣기 공부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알기 전에는 말이죠. 이 책은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저의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아연

꾸준히 듣고 받아쓰기를 한다.

이 방법이면 충분히 듣기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에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들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 걸까?', '다른 과목도 부족하데..' 라는 고민들을 하죠. 이 책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 대비 효율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을 검토한 후, 제가 왜 듣기 만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왜 난 계속 듣기만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답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판을 펴내며,,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개정판을 펴내며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크지 않다.”

“수요가 많지 않다.”

“돈이 되지 않을 거다.”

주변 사람들의 말. 이 중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돈이 주(主)목적이었다면 시작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겐 사람들의 말보다 학생들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듣기는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듣기는 독해처럼 유형별로 푸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매일 매일 꾸준히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어떡하죠?”

그렇게,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고민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봤자 무명 저자의 책. 게다가, 수능 막바지에 출판.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게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고 내게 기대었던 학생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리고 제 작디작은 ‘기대’는 깨어졌습니다. “몇 부 밖에 팔리지 않더라도 꼭 이번 해에 출판하고 싶습니다.”라는 무모함으로 출판된 책이 첫 해에는 예상치의 30배. 그 다음해에는 50배.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연락해오는 학생들. 그렇게, 제 작디작은 ‘기대’는 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크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덜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작았던 기대와 지금의 조금은 덜 작은 기대 사이에는 처음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고민이 자리합니다. 학생들이 보내준 정성스런 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듣보잡 3.0은 저자와 독자가 더 소통하는 책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상담의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자료, 칼럼, 이벤트 또한 꾸준히 제공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21일, 3주의 시간. 어떤 시간보다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수능까지는 제 시간을 써서 그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김희훈 (오르비 닉네임: 바나나기차)

1994. 07 응애~★ at Ulsan

~ 무럭 무럭 무럭

2007. 03 대현중학교 입학

2009. 08 중학교 졸업 포기 후 USA로 진출! (교환학생 1년)

2010. 08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울산 성신고등학교 편입

2012. 11 2013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원점수 100점 (백분위 100%)

2013. 02 울산 성신고등학교 졸업

2013. 11 2014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B형 원점수 100점 (백분위 100%)

2014. 03 서울대학교 입학

2015. 11 군 입대^^ 

2016. 09 듣보잡 출판

2017. 01 듣보잡 Ver. 2.0 출판

.
. .
. . .
. . .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또 흘러~

.
. .
. . .
. . .

2017. 10 꿈에 그리던 전역! 

2018. 05 듣보잡 Ver. 3.0 출판

진도표

본 교재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0.친해지기 <input type="checkbox"/>	I-1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1-B, C <input type="checkbox"/>	I-2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2 (7)~(12) <input type="checkbox"/>	I-3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4 (7)~(12) <input type="checkbox"/>
교재 인증 <input type="checkbox"/>	연1-A <input type="checkbox"/>	연2 (1)~(6) <input type="checkbox"/>	연3 (1)~(6) <input type="checkbox"/>	연3 (7)~(12) <input type="checkbox"/>	연4 (1)~(6) <input type="checkbox"/>	연5 (1)~(6) <input type="checkbox"/>
Day 8	Day 9	Day 10	Day 11	Day 12	Day 13	Day 14
연6 (1)~(6) <input type="checkbox"/>	연8 (1)~(6) <input type="checkbox"/>	II-1 개념 <input type="checkbox"/>	II-2 개념 <input type="checkbox"/>	II-3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11 (11)~(15) <input type="checkbox"/>	III-1 개념 <input type="checkbox"/>
I-4 개념 <input type="checkbox"/>	대단원 복습 <input type="checkbox"/>	연9 (1)~(10) <input type="checkbox"/>	연9 복습 <input type="checkbox"/>	연11 (1)~(10) <input type="checkbox"/>	대단원 복습 <input type="checkbox"/>	연12 (1)~(6) <input type="checkbox"/>
연7 (1)~(6) <input type="checkbox"/>			연10 (1)~(10) <input type="checkbox"/>			
Day 15	Day 16	Day 17	Day 18	Day 19	Day 20	Day 21
연12 (7)~(12) <input type="checkbox"/>	연13 (1)~(10) <input type="checkbox"/>	연14 (7)~(12) <input type="checkbox"/>	III-4 개념 <input type="checkbox"/>	III-5 개념 <input type="checkbox"/>	대단원 복습 <input type="checkbox"/>	IV-1 개념 <input type="checkbox"/>
III-2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14 (1)~(6) <input type="checkbox"/>	연15 (1)~(8) <input type="checkbox"/>	연16 (1)~(10) <input type="checkbox"/>	연18 (1)~(9) <input type="checkbox"/>		IV-2 개념 <input type="checkbox"/>
III-3 개념 <input type="checkbox"/>			연17 (1)~(5) <input type="checkbox"/>			IV-3 개념 <input type="checkbox"/>

*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3주 안에 끝나도록 구성했어.

*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한 단원 내의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말고, 다른 단원과 병행하도록 해.

예를 들어, I.유추하기와 II.계산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말이야. Day 1과 10을 동시에 시작하면 되겠지?

* 'I-1'은 '대단원1- 소단원1'을, '연1'은 '연습문제 1'을 의미해.

* 교재 인증 방법은 '0.친해지기'에 안내되어 있어.

Dictation 21

1st week		딕테이션 안하면,				
Day 1 <input type="checkbox"/>	Day 2 <input type="checkbox"/>	Day 3 <input type="checkbox"/>	Day 4 <input type="checkbox"/>	Day 5 <input type="checkbox"/>	Day 6 <input type="checkbox"/>	Day 7 <input type="checkbox"/>
2nd week		성적이 안 올라.				
Day 8 <input type="checkbox"/>	Day 9 <input type="checkbox"/>	Day 10 <input type="checkbox"/>	Day 11 <input type="checkbox"/>	Day 12 <input type="checkbox"/>	Day 13 <input type="checkbox"/>	Day 14 <input type="checkbox"/>
3rd week		그건 내가 보장하지.				
Day 15 <input type="checkbox"/>	Day 16 <input type="checkbox"/>	Day 17 <input type="checkbox"/>	Day 18 <input type="checkbox"/>	Day 19 <input type="checkbox"/>	Day 20 <input type="checkbox"/>	Day 21 <input type="checkbox"/>

* 하루에 3~4개 밖에 안 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 교재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파일은 판매 페이지(<http://atom.ac/books/#####>)의 부교재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

* 용량이 큰 듣기 파일은 PC를 통해 다운받는 게 좋아.

Contents

- 검토자 서평
- 두 번째 개정판을 펴내며
- 저자소개
- 진도표
- 축하해

0 친해지기

- | | |
|----------------------------------|-----|
| 1. 왜 이 책을 썼을까? | 011 |
| 2. 영어듣기의 중요성? (feat. 절대평가) | 013 |
| 3.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 014 |
| 4.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1) - 교재와 저자 | 016 |
|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2) - 수준별 학습법 | 018 |

I 유추하기

- | | |
|-----------------------------|-----|
|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 023 |
| 연습문제 1 | 027 |
| 연습문제 2 | 029 |
| 2.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2) | 034 |
| 연습문제 3 | 038 |
| 3.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 042 |
| 연습문제 4 | 046 |
| 연습문제 5 | 050 |
| 연습문제 6 | 054 |
| 4. 상황유추 | 057 |
| 연습문제 7 | 058 |
| 연습문제 8 | 062 |

II 계산하기

1. 돈 계산 (1) - 정리하기	068
연습문제 9	072
2. 돈 계산 (2) - 10%의 법칙	082
연습문제 10	085
3. 돈 계산 (3) - 여러 가지 상황	086
연습문제 11	087

III 미리알기

1. 말의 목적(주제)	093
연습문제 12	107
2. 의견	110
3. 일치/불일치 (1) - 내용 일치	119
연습문제 13	128
연습문제 14	129
연습문제 15	132
4. 일치/불일치 (2) - 그림 일치	138
연습문제 16	141
연습문제 17	147
5. 1지문 2문항	149
연습문제 18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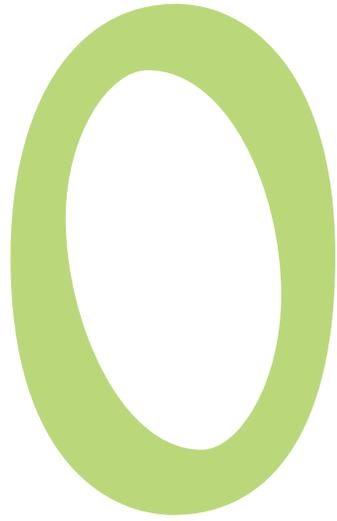
IV 미리보기

1. 실전 풀이법 (1)	159
2. 실전 풀이법 (2)	166
3. 실전 풀이법 (3)	169

■ 고마워

■ Special Thanks to

■ 정답과 해설



친해지기

1. 왜 이 책을 썼을까?
2. 영어듣기의 중요성? (feat. 절대평가)
3.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4.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1) - 교재와 저자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2) - 수준별 학습법

1. 왜 이 책을 썼을까?

쌤~ 영어듣기는 어떻게 공부해요?

이 질문은 내가 수험생일 때는 물론 학원조교로 상담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입시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등 수도 없이 들어본 질문이야. 이 질문이 결국 내가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분명 너희들도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고 혹은 너희들도 이 질문을 해봤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거고.

영어듣기는 당연히 많이 **들어보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듣고** 들릴 때까지 **듣고**,
딕테이션(**듣고** 받아쓰기)하면 돼.
취약한 유형들은 특히 많이 **들어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지.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

독해파트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또는 스킵)을 알려주는 개념서들이 많은데, 왜 듣기파트에는 이런 뜬구름 잡는 **천편일률적**인 방법만 존재할까? 만약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학생들은 왜 끊임 없이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해 물어볼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년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듣자 이러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고 많은 고민을 했지.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아.

독해와 마찬가지로 듣기도 각 유형별로 평가하고 싶은 능력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공부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즉,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결론을 내리자마자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좀 더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방법을 말 이야.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를 분석했고 각 틀리는 이유에 대한 Solution을 찾았지. 이 틀리는 이유는 막연히 '이렇게 틀릴 수도 있겠지?'라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수험생일 때의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라 많이들 공감할거야.

어떤 방법일까? 이 방법은 여태까지의 듣기 공부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야.
바로,

듣기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울 거야. 이 방법을 찾은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ㅋㅋ). 방법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당혹감이 줄어들 거니깐 걱정 마. 혹여나 영어듣기를 잘 못하는 학생이 '이 방법이 나한테도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수능영어에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역대급 난이도로 손꼽히는 13, 14학년도 수능에서 모두 원점수 100점으로 백분위 100%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공부법이 만들었으니 중·하위권들에 잘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실제로 쓴 방법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든 방법이 대부분이고 내가 썼던 실전적 Tip이 조금 들어간 거야. 그 학생들 중에는 듣기를 3개정도 틀리는 학생들부터 많게는 7~8개를 틀리는 학생까지 있었어. 그러니깐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면 돼.

여기까지는 이 책을 쓴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방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처음엔 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 단지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보니 이 방법을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쉽게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그러지 못했어.** 입대를 하고나서 이 방법을 책으로 만든다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시중에는 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만 넘쳐나고 듣기를 위한 개념서가 없더라구. 또, 인강을 듣자하니 듣기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고...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율적인 듣기 개념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훈련소 때 집필을 시작했어. 쉬는 시간마다 수첩에 적다 보니 어느새 수첩이 앞뒤로 꽉 찼어. 그래서 동기들 수첩을 빌려서 썼는데 훈련소를 수료할 때가 되니깐 수첩 5권의 분량의 원고를 썼더라구. 이를 토대로 자대 배치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집필한 결과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 내 책을 시작으로 더 좋고 더 효율적인 듣기 개념서가 나오면 좋겠어.

* 자랑 미안미안~ㅎ

** 지금도 열심히 복무 중이져ㅋㅋ 지금은 전역했지!

*** 그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생략할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필과정에 대한 글 한 번 올릴게.

4.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1) – 교재와 저자

(진도)

이 책은 3주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물론 너희들의 실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3주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벅찬 학생들은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학습하면 돼.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한 단원 내의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말고, 다른 단원과 병행하도록 해. 예를 들어, I.유추하기와 II.계산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말이야.

(추가자료)

진도를 나가면서 기본적인 듣기 연습도 필요해. 앞에서 내가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했어. 이 말은 각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매일 매일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듣고, 들릴 때 까지 듣고, 딕테이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듣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냐. 최소한의 연습은 필요해. 따라서 본 교재 진도와 같이 Dictation 21을 해주면 돼.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 꼭 꾸준히 해주길 바라. 또한, 많이 틀리지 않는 유형들은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야. 이 외에도 정오표, EBS 자료, 모의고사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야. 이 자료들을 빠짐 없이 받는 방법은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어.

(인증)

Total Care System을 받기 위한 절차야. 작년까지는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인증을 해주면 돼. 오픈채팅에서 “듣기를 보면서 잡는다”를 검색 후, 질문방에 들어와서 인증을 해주면 돼. 공지방은 공지를 위한 방이니 인증은 꼭 1:1 질문방에 들어와서 해주길 바라. 인증은 책에 이름을 적어서 찍은 후 보내주면 끝! 그러면 말했듯이, 정오표뿐만 아니라 시기별 칼럼,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EBS 자료 등 수능 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내줄 예정이니 꼭 인증하도록!

질문방 링크: <https://open.kakao.com/o/sGcEtXJ>



또는



(저자)

나를 잘 활용하도록 해. 모든 상담 및 질문은 내가 직접 답변할 거야.* 실제로 한 학생은 평소에 4~5개를 꾸준히 틀렸지만 수능 때까지 나와 70여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수능에서는 다 맞게 됐어. 너희들도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참고로, 오르비 쪽지나 판매 페이지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면 답변에 오래 걸릴 수 있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3주 만에 듣기 실력이 향상 된다고? 약 팔고 있네ㅋㅋ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학생들이 국어 독서 파트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독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지. 문제 유형에 맞는 풀이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마찬가지로, 나는 3주 만에 너희들의 본질적인 듣기 실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는 없겠지만 듣기 '점수'를 향상 시켜줄 수는 있어.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

Elva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듣기를 4~5개 틀렸던 학생입니다! 항상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우연히 오르비에서 듣보잡이라는 교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재를 보고 듣기점수가 오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정말 한번 믿고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3주 동안 열심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그러자 듣보잡으로 공부한 뒤부터 듣기에서 틀리는 개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 때는 다 맞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듣보잡이 아니었다면 저의 수능 듣기 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바나나기차님 정말 감사드리고, 듣보잡이라는 책은 저만 알고 싶은 책이 아니네요ㅎㅎ 정말 제 주변에 듣기를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줄 것입니다ㅎㅎ 저의 듣기 점수를 듣보잡으로 심폐소생술 해주신 바나나기차님 다시 한 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수준별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아직까지는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야. 이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연락이 오면 같이 답변할 사람을 구해야겠지.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2) – 수준별 학습법

이 책은 주 독자가 듣기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를 틀리는 중·하위권 학생들이야. 그런데 작년에 책을 구입한 학생들 중에는 듣기에서 1~2개가 틀려서 구입한 학생들도 적지 않더라구. 그래서 수준별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 봐.

1.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장이 잘 들리는 편이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 하지만 긴장감*, 후반에 집중력 저하, 특정 유형에 대한 징크스** 등으로 인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지. 또 독해의 빈칸추론처럼 듣기에도 고질적인 취약 유형이 있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책을 사서보면 “아니 무슨 듣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 독자가 중·하위권이라 그런 거니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볼 수 있도록. 그럼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특히, 시간이 부족해서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고 싶은 학생은 전체적으로 읽어보길 바라. 듣기와 독해를 동시에 풀다가 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하라고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쓴다면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도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 연습문제를 하나 하나 다 풀 필요는 없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의 연습문제만 풀어봐. 그리고 III.미리알기, IV.미리보기를 잘 활용하면 독해하는데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볼 학생들은 보길 바라.

아래는 판매 페이지 댓글에 ‘난누굴까’님이 남겨준 후기야. 참고하면 돼.

난 누굴까

ㅋㅋ 책 구매하고 2일정도동안 1~2시간정도만 정말 집중해서 투자해서 응답문제 앞에 올 말 예측, 목적/주제 푸는 법, 그림에서 뭘 고려해야 하는 지, 의견주제3, 언급하지 않은 것 문제 출제요소 예측 등등 여타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 조금씩 연습하고 (연습문제 다 안 풀었고 됐다 싶으면 바로 skip 했습니다.) 그냥 몇 세트 모의고사 듣기만 뽑아서 전체적인 스킬연습 조금 했더니 듣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풀 수 있게 되었네요. 듣기가 많이 틀리지는 않고 듣기에 시간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조금 애매한 분은 저처럼 해도 매우 이득일거 같습니다. 책 매우 마음에 드네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 평가원 주관 시험을 아직 쳐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 jinx. 영어로는 처음 보지?

2.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들은 또 두 경우로 분류돼.

①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있는 학생

실수보다는 그 유형이 원하는 논리력, 사고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논리력,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듣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성적이 오를 리가 있나!^{*} 대부분의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이 책의 앞단원에 있으니 앞단원에 집중하되 뒷단원도 소홀히 하지는 마.

② 틀리는 유형이 매번 달라지는 학생

덤벙대는 학생일 확률이 높아. 논리력과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집중력이 약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1~2개를 틀리는 학생과 같은 수준이야.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니 인정하고,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줄 때 좀 더 유의하도록 해. 또 현재 틀리는 문제를 맞히기 위한 논리력과 사고력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하구.

위의 두 경우의 학생들은 교재와 기본적인 듣기 연습을 병행하도록 해. 하루에 딕테이션 3문제씩만 하면 돼. 얼마 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해. 판매 페이지에서 받아서 하면 돼.

3. 듣기를 5~7개 틀리는 학생

듣기를 5~7개 틀리는 학생들은 특정 유형을 틀리기보다 다양하게 골고루(?) 틀리는 경우가 많아. 듣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지. 바로바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깐.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이 책을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가장 성적이 잘 오르는 분류이기도 해. 이 학생들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길 바라.^{***} 3~4개 틀리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딕테이션을 병행하도록 해. 하루에 3문제씩! 판매 페이지에서 받아서 하면 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더디게 오를 거야.

* 화난 거 아님.(단호)

** 안녕! 사실 주석성애자 + 설명요정이야. 부분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건 문장 전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어, 단어를 듣고 조합해서 뜻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 '바라'와 '바래' 바른 표현. '바라다'는 어간 '바라-' 뒤에 어미 '-아'가 붙을 때 '바라'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국어영역에 나오면 개이득?)

QnA

Q: 선생님~ 저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데 유형별로 푸는 법인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ㅠㅠ

A: 좋은 질문이야!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부분 부분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17문제 중 10문제 이상은 맞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틀린 후에 다시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보다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야. 예를 들어, 1~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듣기가 끝나. 이 경우에도 '잘 안들린다.'라고 표현하지. 하지만 다시 들을 때는 대충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미리 알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리던 부분이 들리게 되는 거지.

이처럼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듣기가 정말 안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 책은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물론, 듣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이 책과 함께 최소한의 듣기 연습을 병행해야 해.

Fag***!

수능 전

드디어 1회독이 끝났습다..

영어 풀면서 정말 싫은 게 듣기였고 매일 듣기를 해야 하는 걸 알기에 하긴 하지만 EBS 듣기 교재 꺼내는 게 얼마나 싫은지ㅠㅠ 근데 듣보잡이 듣기 공부에 의욕을 심어주셨습니다. K.W 찾는 법에 놀랐고 실제로 찾으니까 내가 원래 아는 내용처럼 술술 들리더라구여 (왜 제목이 듣보잡인지 깨달음) 계산 문제도 훨씬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특히 할인 방법 정말 꿀팁.. C.S와 T.S도 훨씬 빨리 찾고.. 주제 유형 공부하는데 왜 독해 주제가 빨리 풀리는지 ㅋㅋ 독해 주제 유형에서 T.S가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ㅋㅋ 듣기책 아니었나..?ㅋㅋ 일치 유형도 K.W 잘 찾게 되고.. 아직 실전 풀이법이 완전히 익혀진 건 아닌데.. 남은 시간동안 실모로 연습해보려구요. 시험지 접는 거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실모 풀 때마다 듣기가 너무 하기 싫고.. 의욕도 없었는데 이젠 듣기 없는 실모는 거르고 풀어요ㅋㅋ 30일 가량 남았어요. 파이널 때 듣보잡 책 알게 되었는데 얻어가는 게 가장 많았던 교재였어요.. 수능날에도 듣기 때 자신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상병다신 바나나기차님 좋은 교재 써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수능 듣기 다 맞고 올게여.

수능 후

오늘 수능 영어를 마쳤습니다
 17년도 9월 평가원 영어
 듣기 7, 8, 9번 연속 나가기
 대의파악 21, 22, 23번 연속 나가기

그리고 17 수능 영어
 1번부터 17번 전부 다 맞고, 대의파악 주제, 요지, 제목 C.S, T.S 구별로 전부 다 맞았어요.

물론 33,34번은... (농물....)

듣보잡 교재 ㄹㅇ 대박

4. 듣기를 8개 이상 틀리는 학생

8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은 이 책을 단독으로 공부하기 힘들어. (단호) 이 학생들은 기본 단어, 기본 문장 패턴을 먼저 학습을 해야 해. 작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려 무료 멘토링도 해주고, 자료도 만들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었어. 그런데 결국엔 중도에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해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만약 멘토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오르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할게.



유추하기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2.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2)
3.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4. 상황유추

이 단원에서는 유추하기 유형을 푸는 데 필요한 논리력을 키우는 연습을 한 후 실전적 풀이법을 배울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 걱정 말고 따라오면 돼. 간단하긴 하지만 이 단원에서 배우는 유형들은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자.

- 1, 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 13, 14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 15번에 해당하는 '상황 유추'

이렇게 3가지 유형이야. 어때? 이 중 최소 한 유형은 취약 유형이지? 그럼 어서 이 유형들을 차례대로 알아보자.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이 유형은 시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유형이야. 1~2번에 해당하지. 우선 왜 틀리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앞으로도 대부분의 유형을 다룰 때, 틀리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Solution을 알아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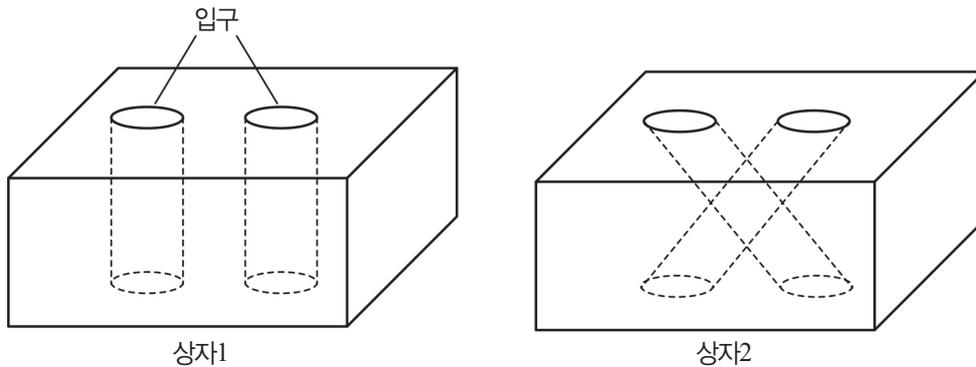
① 틀리는 이유

- A. 두 개의 선지 중에 고민하다가 오답을 체크함 (보통 이 경우 나중에 돌아와서 풀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지ㅋㅋ)
- B. 긴장해서 제시된 대화를 잘못 들음 (빠르게 지나감)
- C. 대화를 잘 듣고 선지를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는데! 미처 답을 찾기 전에 다음문제 방송이 나옴 T_T

어때? 틀리는 학생들 대부분이 읽으면서 공감하고 있을 거야. '땀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ㅋㅋ) 그럼 이제 Solution을 알아보자.

② 발상의 전환

잠깐~! Solution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봐.



위와 같은 두 개의 상자가 있어. 상자 내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그리고 임의로 한 개의 상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정해봐. 이 때, 왼쪽 입구에 공을 넣었을 때 어느 쪽 출구로 공이 나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건은 입구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상자를 훼손하지 않는 거야.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 바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한 후에 답을 확인해 봐.

연습문제 2

연습문제 1에서는 개별적인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5개의 선택지가 통째로 주어질 거야. 각각의 선택지의 앞에 올 말을 유추해서 적은 다음, 듣기 파일을 듣고 답을 고르면 돼. 디테일하게 적지 않아도 돼.

예시를 들어줄게.

Ex)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 6월 B형)

- ① No, I don't have a computer.
: 너 컴퓨터 있어?
- ② Right, I'll call you when I'm done.
: 다하고 전화 할 거지?
- ③ Yeah, I saved it in my cell phone.
: 번호 저장했어?
- ④ Yes, I'll buy you a new cell phone.
: 새 폰 사줄 거예요?
- ⑤ Sorry, you've got the wrong number.
: 어? 영민이형 폰 아닌가요?

이 정도로만 유추를 하고 듣기 파일을 들으면 돼. 지금은 예제이니깐 스크립트를 보여줄게.

M: What's up, honey? Is something wrong?
W: The online banking system has suddenly stopped working!
M: Hmm.... Why don't you call the bank? Do you have the phone number?
W: _____.

정답은 몇 번이겠어? ③번이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번호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상황**은 같아.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어때, 연습문제 1보다 학습하는 데 부담이 덜 되지? 만약 연습문제 1을 풀지 않고 바로 이 연습을 시켰으면 힘들다고 했을 거야.* 총 12문제이니깐 마찬가지로 이틀에 나눠서 풀도록 해. 유추를 해 놓고 풀면 어떤 상황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대충 알고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가 수월할 거야. 연습문제 1을 제대로 학습했다면 너희가 유추한 5개의 선택지 중 하나의 내용이 나올 거구.**

주의할 점: 귀찮다고 모든 문제에 유추한 걸 적은 다음 한꺼번에 듣기 파일 듣지 말 것!

* 큰 그림. Big Picture.

** 완전히 일치할 거란 말이 아니야. 예제에서 봤던 것 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겠지.

3.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기본적으로 긴 대화는 짧은 대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하면 돼. 그렇지만 이렇게 단원을 따로 만든 데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잘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줄게.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긴 대화가 짧은 대화보다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더 긴장하고 위축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근데 사실은 정반대야. 짧은 대화는 한 번에 숙~하고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알기 힘든 반면에, 긴 대화는 앞부분에서 상황과 맥락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긴 대화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더 쉬워. 실제로 긴 대화의 앞부분이 없어도 답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정말일까? 아래 문제들을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14.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7. 6월)

W: Well, I checked the computers myself. I don't think they're that slow.
M: If the students are having problems, maybe it's time to get new ones.
W: I see what you're saying, but we should consider the cost.
M: _____

- ① Right. We can't ignore complaints about the staff.
- ② Of course. Air conditioners will be very expensive.
- ③ Yeah, but it's important to keep our students happy.
- ④ Then, I'll teach you how to use the computer program.
- ⑤ Really? Sorry to hear the computer classes will be closed.

13.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7. 9월)

W: It takes more than an hour and a half. It's too far.
M: I know. You do like to be around children, though.
W: True. But I'm not sure whether it's worth my time and effort.
M: _____

- ① Of course, it is. It'll be good for your future career.
- ② Certainly. You're scheduled to meet my assistant.
- ③ I don't think so. You can't use the center for free.
- ④ No way. You don't want to work with children.
- ⑤ Yes. It's necessary to quit my part-time job.

II

계산하기

1. 돈 계산 (1) – 정리하기
2. 돈 계산 (2) – 10%의 법칙
3. 돈 계산 (3) – 여러 가지 상황

첫 번째 대단원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을 공부할 차례야. 이번 단원에서는 한 유형만 중점적으로 다룰 거야. 단원명에서 이미 어떤 유형인지 짐작했을 거야. 바로 흔히들 말하는 돈 문제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려본 경험이 있을 거야. 취약 유형이라서 매번 틀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구. 돈 문제는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주어지고 그에 대한 계산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도 종종 틀리는 유형이야. 하나의 정보라도 놓치게 되면 치명적이고 계산실수도 없지 않아.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니만큼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서 기초부터 활용까지 차근차근 다룰 거야. 각 소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다음 6문제들을 통해 알 수 있어.

1. 정리하기

정보가 빠르게 주어질 때는 빠르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리를 안 해. 숫자를 끄적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곧잘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3단원에서 다음 문제들을 틀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깐 이 책을 보는 학생들은 겸손한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우선 스크립트를 하나 들려 줄 테니 풀어 봐. 아래의 빈칸은 자유롭게 활용하면 돼. 숫자를 끄적이던 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듣기 파일은 II.계산하기 폴더에 “1. 정리하기 예제”를 들으면 돼.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16. 9월) 

- ① \$36 ② \$45 ③ \$50 ④ \$63 ⑤ \$70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정말 궁금해. 혹시나 혹여나 너무 심심하다면 너희들이 정리한 걸 찍어서 보내줘. 얼마나 잘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 거니까 못해도 상관없고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 물론 고민 상담이나 책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듣고 정리해봤어.

* 이미 대단원 소개에서 틀렸을 수도..ㅎ

스크립트:

W: Hi. Can I help you?
 M: I'd like to try some of your water sports activities.
 W: Which ones would you like to try?
 M: My family loves boating. How much is it to rent a boat?
 W: It's \$20 per hour, and that includes the insurance fee.
 M: Okay. I'd like to rent a boat for two hours. And I heard that snorkeling is wonderful here. Do you have snorkeling sets as well?
 W: Yes, they're \$5 per set for one day.
 M: Then I need two snorkeling sets for my kids for a day.
 W: Sure. A boat for two hours and two snorkeling sets. You can also rent a fishing pole if you're interested. It's only \$20.
 M: Hmm... I don't need one.
 W: I see. Are you staying at this resort? We offer a 10% discount to the guests.
 M: Great! We are staying here.
 W: What's your room number?
 M: It's 216. Here's my credit card.

B	$20/h \times 2$	40	}	-10%
S	$5/d/s \times 2 \times 1$	10		
F	20×0	0		

어때, 잘했쥬?(뿌듯) 너희들이 한 것과 너무 차이난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곧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깐. 내가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물품1	가격/단위 × 수량	}	할인
물품2	가격/단위 × 수량		
...			

개념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우선 물품이야. 물품은 세로로 쓰는 게 가장 편해. 그래야 정보를 가로로 적을 수 있거든. 물품을 가로로 써도 상관 없어. 단지 나는 내 기준을 알려주는 거야. 이 때 물품은 약자로 쓸 수 있도록 해. 약자는 그냥 앞글자만 적으면 돼.

*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개념도라는 단어를 썼어. 혹시 더 괜찮은 말이 있다면 알려줘!

3. 여러 가지 상황

앞의 두 단원에서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웠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볼 거야.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평가원 8개년과 서울시교육청 5개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한 후 선별하고 또 선별한 13문제를 수록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2문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어. 서문에도 말했듯이 기출 문제만큼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에 자작문제를 넣지 않았지만 이 단원에서 만큼은 변형도 하고 문제도 만들어봤어.



총 15문제로 이 15문제만 완벽히 하면 돈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어. 반복해서 풀어서 모든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어야해. 정리하는 것도 꼭 같이 해야해.

* 크게 변형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쉽게 출제된 문제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어렵게 만들었어.

(1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15. 수능)

- ① \$9 ② \$16 ③ \$18 ④ \$20 ⑤ \$27

(13)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저자 자작문제)

- ① \$230 ② \$235 ③ \$240 ④ \$255 ⑤ \$270

(1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의 액수를 고르시오. (저자 자작문제)

- ① \$33 ② \$44 ③ \$45 ④ \$55 ⑤ \$56

(1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한 물건 값으로 한 달에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11. 수능)

- ① \$60 ② \$120 ③ \$250 ④ \$360 ⑤ \$400

III

미리알기

1. 말의 목적(주제)
2. 의견
3. 일치/불일치 (1) - 내용 일치
4. 일치/불일치 (2) - 그림 일치
5. 1지문 2문항

벌써 4개의 대단원 중에 2개를 끝냈어. 수고했어. 앞의 두 단원에서 이론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제 배울 두 단원에서는 실전적인 것을 배울 거야.

이 단원에서는 단원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미리 알아보는 법을 배울 거야. '무언가'가 뭘까? 바로, '정답의 위치'야. 독해 유형에도 각각의 정답의 위치가 있듯이, 듣기에도 각각의 유형에 정답의 위치가 있어. 이 위치를 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절약한 시간을 독해를 풀 때 활용할 수 있지. 기대되지? 그럼 이번 단원도 파이팅!

1. 말의 목적(주제)

이 유형은 3번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앞의 1~2번 보다 정답률이 높아. 정답률이 높지만 이 유형을 다루는 이유를 알려줄게.

- ❶ 그래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
- ❷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끝까지 듣는 학생들이 있어
- ❸ 독해의 같은 유형을 풀 때 시간단축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틀리는 이유부터 Solution까지 같이 알아보자구! 레츠 꼬~~우!

① 틀리는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답의 위치를 몰라서’야.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끝까지 듣다가 특정 단어에 현혹되어 오답을 선택하지. 애초에 정답이 나온 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찢리는 학생들 많지??

② Solution

그렇다면 Solution은 뭘까? 틀리는 이유가 ‘정답의 위치를 몰라서’이니깐 당연히 ‘정답의 위치를 알면 된다.’이겠지. 정답의 위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려줄 게 있어. 이 Solution에는 대전제가 있어. 그건 바로

목적(주제)은 무조건 한 개

라는 거야. 사실 이걸 너무나 당연해. 60초 남짓 되는 짧은 시간에 두 개의 목적과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말도 안될뿐더러 무엇보다도 정답이 하나잖아? 이것을 전제로 Solution을 알려줄게.

최근 평가원 5개년 20문제를 분석해보면 정답의 위치는 2가지야.

정답의 위치 A.

도입문장(Casting Sentence, 이하 C·S**) 직후 주제문(Topic Sentence, 이하 T·S)이 나오는 경우야. 20문제 중 13문제에 해당해.

다음 두 스크립트를 살펴보자.

* 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지만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했어.

** Intro Sentence로 하려했지만 약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17. 수능)

Hi, Health and Leisure Radio listeners! This is Stacy from Green FieldsFarm. I'd like to invite you to try one of our farm experience programs. Our walking program takes you on a relaxing tour through the fields of our farm. On the tour, you can feed our animals. Do you want to bring some fresh fruit home with you? Then, try our fruit-picking program. We even have a cheese-making program for you. These are just a few of the programs we offer for your family or company event. To find out more, call us at 213-568-1234 or go to www.greenfieldsfarm.com. We're excited to see you here at our farm experience programs. We know you'll love it here!

(16. 6월)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studied the functions of insects' wings. Today, we're going to move on to look at some functions of animals' tails. One of these is communication. As you know, dogs can wag their tails to show that they're happy. Tails can also serve as a means of protection. For example, horses use theirs to keep harmful insects away, and crocodiles defend themselves from attackers using their tails as weapons. There are other functions of tails as well. Squirrels use their tails to keep balance and monkeys can hold on to trees with theirs.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Now, let's study them in more detail by watching a video clip.

분홍색 바탕이 C·S, 그 다음 분홍색 문장이 T·S야.

C·S를 먼저 살펴보면 두 C·S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첫 번째 스크립트의 C·S는 자기소개를 통해 화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반면에 두 번째 스크립트의 C·S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보통 말의 목적에서 전자, 말의 주제에서 후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문제의 발문을 통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있어. 참고하도록 해. 특히, 말의 목적에서 자기소개는 큰 단서가 되기도 해. 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리는 것이 좋겠지?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있으니깐 말야. 평가원은 이 원리에 따라 스크립트를 구성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통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으니 흘러들으면 안 돼.

다음으로 T·S를 살펴보자.

첫 번째 스크립트의 T·S는 다음과 같아.

I'd like to invite you to try one of our farm experience programs.

이 이후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전혀 없어. 왜? one of our farm experience programs에 대해 말할 테니깐! 실제로 스크립트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어디 문제를 볼까?

* 여기서는 학교 수업시간인 것을 알 수 있지.

2. 의견

이 유형은 4번에 해당해. 그런데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4번에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정리해봤어.

		의견	두 사람의 대화 주제
14 학년도	예비 시험	o	o
	6월 평가원	o	o
	9월 평가원	o	o
	수능	o	o
15 학년도	6월 평가원		o
	9월 평가원		o
	수능		o
16 학년도	6월 평가원	o	
	9월 평가원	o	
	수능	o	
17 학년도	6월 평가원		o
	9월 평가원		o
	수능	o	
18 학년도	6월 평가원	o	
	9월 평가원	o	
	수능	o	

듣기에서 22문항이 출제되었던 14학년도에는 두 유형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어. 15년도부터 다시 개정돼서 17문항이 출제될 때는 한 문제만 출제됐어. 그런데 그 유형이 하나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더라구. 내가 처음 이 책을 출판했을 때가 17학년도 9월 평가원 직후인데 6월, 9월에 모두 두 사람의 대화 주제 유형이 나왔었어. 그래서 의견 유형을 빼야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통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빼지 않았어.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통가원은 통가원이었지 ㅋㅋ 수능에 의견 문제가 떠~억! 너희들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평가원이 어떤 일관된 경향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면 안 돼. 참고만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이 유형은 틀리는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쪽으로 설명할 게. 이 유형을 틀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이 유형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루기 때문이야. 틀리는 학생들은 어떡하냐? 관찮아. 정답의 위치를 알면 틀리는 이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번 유형의 정답의 위치는 간단하고 노골적이며 또한 파격적이야. 궁금하지? 알려주기 전에 몇 문제 풀어볼 거야.

* 통수 + 평가원

내용일치 단어정리

앞에서 일치성 판단의 대상을 분류해봤어. 그 대상별로 기출된 단어들 정리했으니 이 단어만큼은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

① 행사·프로그램

in advance	사전에, 미리
advance to the final	결승에 진출하다
annual	매년의, 연례의
↳ every 2 year	2년에 한번
applicant	지원자
application	지원서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 (로선 등을) 바르다
↳ apply to	~에 지원하다, ~에 적용하다
↳ apply for	~에 지원하다
artificial	인공적인, 인공의
audience	관객
available	이용 가능한
booking	예약
career fair	직업박람회
at no charge	무료로
committee	위원회
compete	경쟁하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consideration	고려사항
course	강좌
deadline	마감일
depart	출발하다
entrance fee	입장료
evaluate	평가하다
exhibition	전시회
facilities	시설들
fair	박람회
fill out	작성하다

4. 일치/불일치 2 – 그림일치

그림일치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이 유형을 틀리면 친구들이 “넌 눈이 없냐? ㅋㅋ” 라고 놀리기도 하지. 근데 틀리고 나면 ‘그냥 실수’래. 이게! 문제인거야. 듣기를 틀리면 대부분 “으 ㅜ_ㅜ 듣기 실수했어... 듣기 때문에 등급 내려갔어. ㅠ_ㅠ” 이런단 말이야. 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하려고 안하지. 그러니깐 따로 대비도 안하게 되고 틀리는 걸 반복하지.(ㅂㄷㅂㄷ)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를 알려줄 테니 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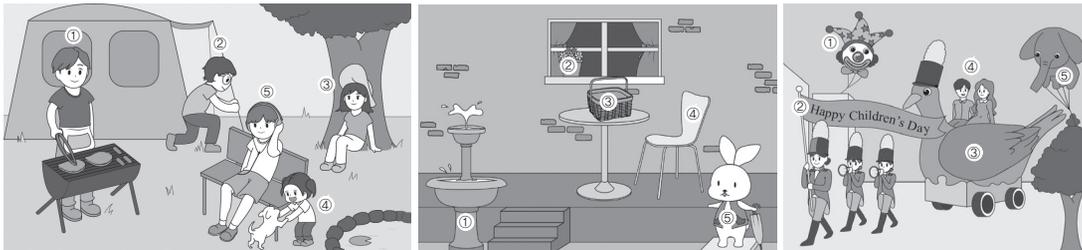
① 틀리는 이유

- A. 한 선택지에 일치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부만 판단하고 넘어가버림
- B. 어휘와 표현을 모르거나 헛갈려함

기본적으로 내용일치와 비슷한 이유로 틀려. 하지만 세부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다른 점이 있어. 자세한 건 Solution에서 알아보자!

② Solution

- A. 그림일치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 처음 들어보지?



사람이 나오는 유형, 사물이 나오는 유형, 사람과 사물이 둘 다 나오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본 학생이나 선생님은 별로 없을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을까?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야.

먼저, 사람이 나오는 유형을 보자. 사람이 나오는 유형에서는 **위치, 자세, 행동, 복장**에 유의해야 해.

여기서 **위치**는 그림 상 절대적 위치와 그림 내 상대적 위치를 말해.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절대적 위치는 그림의 좌측 위·아래, 우측 위·아래, 중간을 말하고 상대적 위치는 ‘연못의 왼쪽’과 같은 위치를 말해. **자세**는 사람이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매달려있거나 하는 것을 말해. **행동**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고. 마지막으로 **복장**은 모자, 우의, 헤드폰, 특별한 무늬의 옷처럼 눈에 띄는 것만 보면 돼.

IV

미리보기

1. 실전 풀이법 (1)
2. 실전 풀이법 (2)
3. 실전 풀이법 (3)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단원이야. 이번 단원에서는 언제, 어떤 문제들을, 어떤 순서를 따라 미리 볼 지부터 시험지를 효율적으로 보는 법, 남은 시간 활용 법까지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배울 거야. 아무리 개념을 많이 학습한다고 해도 실전에 적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이 단원은 새로 배우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 끝까지 열심히 하자!

3. 실전 풀이법 종합 (3)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① 언제 미리 볼 것인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미리 볼 지에 대해 배웠어. 이제는 언제 미리 볼 지에 대해 배워보자.

우선,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자.

- ①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 후 듣기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의 시간
- ② 각 문제와 문제 사이의 시간
- ③ 문제의 답을 구한 직후부터 다음 문제 시작까지의 시간
- ④ 1지문 2문항 유형을 두 번째로 들려주는 시간

①의 시간은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40초 정도 돼. 이 시간 동안 1~3번, 13~15번의 선택지를 미리 보면 돼. 다 봐야한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대로 보면 돼. 처음에는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숙달되면 빠르게 될 거니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 13~15번은 이 시간에 다 못 봐도 상관없어~ ②의 시간에 보면 되니깐 말이야.

②의 시간은 문제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13~17초니깐 평균 15초라고 잡으면 17문제의 사이사이마다 총 16번, 즉 4분의 시간이 있는 거야. 4분이라는 시간이 얼마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쉬운 독해 몇 문제를 풀 수 있어.

쌤,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와 같은 경우는 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들지 않을까요?

아냐. 우리가 K·W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I·유추하기에서 논리력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 온 학생들은 듣기가 끝나는 동시에 답을 체크할 수 있어. 만약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꼼꼼히 학습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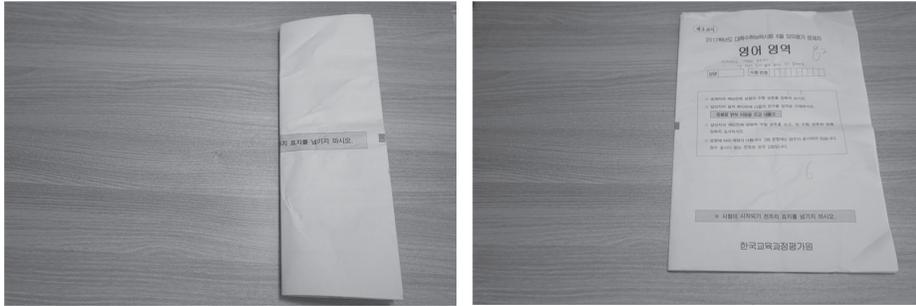
그럼 이번에는 ③의 시간을 알아볼까? 이 시간은 우리가 III·미리알기 단원에서 배운 유형들과 관련이 있어. 3번에 해당하는 말의 목적, 4번에 해당하는 의견은 정답의 위치가 앞부분에 있어. 따라서 정답을 찾은 직후에는 미리 보기를 하면 돼.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3번은 55초, 4번은 45초의 시간이 남아. 이 뿐만 아니라 그림일치, 내용일치, 언급유무, 표 등의 유형들 중에서도 답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렵잡아 계산해도 2분이 넘어.

마지막으로 ④의 시간을 알아보자. 스크립트를 한번 들려준 이후부터 두 번째 들려주고 16번 문제가 나오기 직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해봤어(16~17번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은 포함을 안 시켰어. 어차피 학생들은 그 시간에 독해로 넘어가있으니깐). 마찬가지로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1분 20초정도가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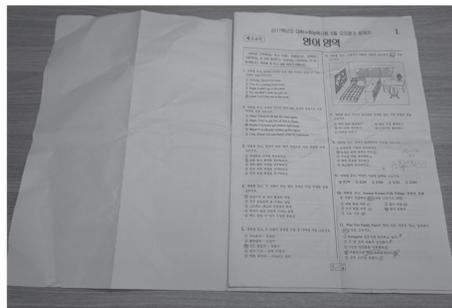
② 시험지 보는 방법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거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 익숙하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나 가면 돼.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게 이해가 잘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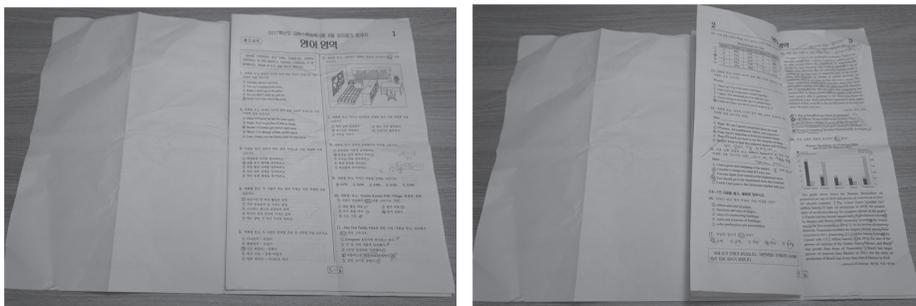
① 시험지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반을 접었다 펴.



②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이 나오면 표지를 넘긴 후 1~3번 미리보기를 해.



숙달된 학생들은 1~3번을 끝내고, 아래와 같이 표지 뒷면과 1페이지가 펼쳐진 상태에서 1페이지를 반으로 접은 후, 13번부터 미리보기를 하면 돼.



연습문제 2 해설 (문제 p.29~33)

빠른 정답

- (1) ⑤ (2) ③ (3) ⑤ (4) ⑤ (5) ③ (6) ③
 (7) ① (8) ④ (9) ⑤ (10) ① (11) ⑤ (12) ④

(1) 정답: ⑤

- ① No. I don't like the animal.
: 동물 좋아해?
- ② Thanks. You saved my dog.
: 이 개 당신 개예요? 도로에 있더라구요.
- ③ Okay. I'll take care of your pet.
: 내 개 좀 맡아줄 수 있어?
- ④ Sorry. I don't have time to volunteer.
: 나랑 같이 봉사활동 가자.
- ⑤ Of course. They need more volunteers.
: 그들이 내 도움이 필요할까?

스크립트:

M: I heard you started volunteering at the animal shelter. Is that true?
 W: Yeah. I started last week.
 M: I really like animals. Do they want more help?
 W: _____

“그들이 도움이 더 필요해?”라는 질문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⑤번이 당연히 정답이겠지? 쉬운 문제였어. 헛갈리는 선택지도 없었을 거야.

오답 뽀개기

마지막 문장인 의문문의 주어(they)만 잘 들었어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they’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①~④번은 ‘I’, ‘You’를 언급하고 있으니 답이 될 확률이 낮아. 자 이제 오답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서 분석해보자.

- ①: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에 대한 답이 나와야해. ①번이 답이라면 남자가 동물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야해.
 ②: 여자의 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
 ③: 애완동물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은 없어.
 ④: 여자는 이미 저번 주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돼.

(2) 정답: ③

- ① Singing makes me feel better.
: 왜 노래해?
- ② I can't believe I passed the audition.
: 축하해요. 통과입니다!
- ③ Just sing the song that you really like.
: 어떤 노래를 부를까?
- ④ Please let me know how to be a good singer.
: 좋은 가수가 되는 법을 알려줄까?
- ⑤ I don't think the song is good for the audition.
: 이 노래 어때? 오디션에서 부를 건데.

스크립트:

W: Hey, David, I decided to audition for the singing program, Hidden Stars.
M: Good for you! What are you going to sing in the audition?
W: I have some songs in mind, but I'm not sure which one is best.
M: _____

③번 선택지로 잘 추론했다면 맞힐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추론한 것은 의문문 형식이지만 어떤 노래를 부를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동일해.

오답 뽀개기

- ①: 지금 상황의 중심은 여자에게 있어. 그런데 남자가 생뚱맞게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를 말하는 건 어색해
- ②: 오디션에 참가하는 사람은 여자야. 따라서 남자가 오디션에 통과했다는 건 어색해. 또, 스크립트는 오디션을 보기 전이므로 passed라는 과거시제는 어울리지 않아.
- ④: 마찬가지로, 오디션에 참가하는 사람은 여자야. 따라서 남자가 노래를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 어색해.
- ⑤: 이 선택지는 그나마(?) 매력적인 선택지야. 하지만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이미 오디션에서 부를 노래를 정한 뒤 남자에게 노래가 어떤지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어야 해. 지금 여자는 노래를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니 정답이 될 수 없어.

연습문제 4 해설 (문제 p.46~49)

(1) Then can you send them to me by text message?

해석: 그러면 그것들을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어?

우선 'them'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주면 되겠지. 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낼만한 걸 생각해보니 친구들의 연락처가 떠올랐어. 그래서 상황을 다른 친구들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정했어. 상황을 정확하게 되면 대화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W: 무슨 일 있어? 초조해보여.

M: 경준이랑 영민이형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번호가 없어 ㅌ_ㅌ

W: 내 핸드폰에 저장돼있을걸?

M: Then can you send them to me by text message?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자.

(2) Sorry. I can't work night shift.

해석: 미안해. 나 저녁에는 근무 못해.

근무시간 조정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으로 정해봤어.

M: 아휴... 야간 근무로 배정받았어.

W: 너 야간 수업 있지 않아?

M: 응... 그래서 말인데 나랑 근무시간 교대해줄 수 있어?

W: Sorry. I can't work night shift.

(3) In fact, I already taught what he talked about yesterday.

해석: 사실, 어제 그가 말한 것 이미 가르쳤어요.

이 문제는 조금은 어려웠을 거야. 일단 사물대명사보다 사람(인칭)대명사를 등장시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부사인 'already'와 'yesterday'도 신경 써야 해서 그래.

일단 'taught'이 가르치는 걸 뜻하니깐 두 명의 화자를 선생님, 'he'를 학생이라 설정했어. 그러면 상황은 두 명의 선생님이 한 학생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제 'already'와 'yesterday'에 대해 생각해보자. 선택지의 화자가 '이미' 가르쳤다고 말을 했으니 그 전에 상대

막간어휘 #1: referee vs judge

referee: (스포츠 경기의) 심판

judge: 1. 판사 2. 심판, 심사위원

둘 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referee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 judge는 판사, 심사위원 쓰인다고 알고 있으면 돼.

cf. 배심원: juror, jury

막간어휘 #2: terrific vs terrible

terrific: 아주 좋은, 멋진, 훌륭한

terrible: 끔찍한, 소름끼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정반대이니깐 헷갈리면 큰일 나!!

(7)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해석: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자리 예약할 수 있어.

이 선택지는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봤어. 두 상황 모두 선택지의 화자가 자리를 예약해야 하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상황이야. 차이점은 두 사람의 관계야.

첫 번째 상황은 친구사이야.

M: 현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W: 왜 그래? 급한 일이야?

M: 기차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두 자리를 예약해야 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W: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두 번째 상황은 항공사직원-고객이야.

M: 비행기를 놓쳐서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려해요.

W: 그렇군요. 몇 자리가 필요하시죠?

M: 두 자리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 꼭 가봐야 해요.

W: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연습문제 9 해설 (문제 p.72~81)

빠른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② (5) ③ (6) ④ (7) ② (8) ② (9) ② (10) ③

(1) 정답: ②

T 10×1
M 4×2
B $1/e \times 2$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처음이라 그래..ㅎ 처음에는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야지! 단위는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니깐 주어질 때만 적으면 돼.

(2) 정답: ③

A ww
wd $200/a \times 2$ } -10%
100/c $\times 1$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물품명은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두 글자로 적어주는 게 좋아. 이런 경우 두 개의 물품명의 앞 단어의 철자가 같을 때가 많거든.

(3) 정답: ④

S J $2/100g \times 3$
B $3/100g \times 1$
C $1/e \times 10$

단위 잘 정리했지?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어.

(4) 정답: ②

$$\begin{array}{l} \text{Cb } 100 \times 1 \\ \text{Cf } 20/p \times 1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text{Cb } 100 \times 1 \\ \text{Cf } 20/p \times 1 \end{array}} \right\} -10\%$$

(2)번과 마찬가지로 두 단어로 이루어졌으니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뺀어. Cat basket을 그냥 C라고 했더라도 Cat food는 Cat basket과 구분하기 위해 Cf라고 적어야해.

(5) 정답: ③

$$\begin{array}{l} \text{W L } 30 \times 1 \\ \text{S } 20 \\ \text{P } 5/e \times 2 \\ \text{S } 10/p \times 1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text{W L } 30 \times 1 \\ \text{S } 20 \\ \text{P } 5/e \times 2 \\ \text{S } 10/p \times 1 \end{array}} \right\} -10\%$$

S는 가격은 나왔지만 구입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나중에 계산할 때 금액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0을 곱해주거나 가격에 X표를 하는 게 좋아.

(6) 정답: ④

$$\begin{array}{l} \text{M } 2/e \times 2 \\ \text{A } 4/e \times 1 \\ \text{R } \text{ gift } 10 \text{ or } \uparrow \\ \text{Cd } 2/e \\ \text{Cp } 4 \times 1 \end{array}$$

\$10 or more과 more than \$10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해. 전자는 \$10 이상을 뜻하고 후자는 \$10 초과를 뜻해. 이 차이가 문제를 맞히나 틀리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 꼭 숙지하도록!

(5)번과 마찬가지로 Cd는 사지 않았으니 X표를 치는 게 좋아.

(10) 정답: ⑤

D 150×1
 B $50 \times 2 - 10\%$
 +D.f $10/i \times 3 \sqrt{0}$ if $300 \uparrow$

가격보다 수량이 먼저 나왔지만 각자 자리에 적어주면 돼. 할인의 범위도 잘 체크해야 해. 책장만 10% 할인이야. 문제는 배송비야. 보통의 문제에서는 개수에 상관없이 배송비가 일정한데 이 문제는 \$10 per item으로 개수에 따라 달라져. 이 부분을 놓친 학생들이 꽤 있을 거야. 단위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도록! 'but It's free if the total is more than \$300!'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정보야. 총액이 \$240이니깐 해당되지 않지. 아무 생각 없이 배송비를 0원이라 생각하고 계산한 학생들은 반성하도록!

	\$10	\$10 per item	free
전체 할인	② \$235	\$255	① \$225
책상만 할인	④ \$250	⑤ \$270	③ \$240

이번 문제에서도 선택지를 잔인하게 만들었어. 잘 피해갔니?

W: Hi, Peter.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Oh, hi, Jenny. I'm ordering some new furniture online.
 W: What are you buying?
 M: A desk and two bookshelves. I don't know which ones to buy.
 W: What about this desk? It's \$150. And it's beautiful.
 M: Okay. I'll put it in my shopping cart. And for the bookshelves.... Oh, how about this style?
 W: Looks good, and it's only \$50. And you need two of them, right?
 M: Yes. Look! They offer a 10% discount on bookshelves if I buy two or more.
 W: Great! Is there a delivery fee?
 M: They charge \$10 per item, but it's free if the total is more than \$300.

연습문제 12 해설 (문제 p.107~109)

빠른 정답

- (1) ② (2) ③ (3) ② (4) ① (5) ④ (6) ①
 (7) ⑤ (8) ④ (9) ① (10) ① (11) ② (12) ①

(1) 정답: ②

W: Do you remember the panda in the famous movie Kung Fu Panda? Thanks to the cute character in the movie, people have come to love this animal even more. Unfortunately, the population of pandas has been falling for decades. One of the reasons is that many of the pandas' forests have gone. They've been cut down to make towns. Another is that pandas are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food. Bamboo is pretty much the only food the panda eats. But it's predicted that nearly all the bamboo in the pandas' habitat could disappear by the end of this century because of global warming. Panda lovers say it's time to help the pandas.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C·S를 이용하는 거야. ④번(영화가 판다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만들어진 선지야. 어설프게 '앞의 내용만 들어도 풀 수 있어.'라는 말만 믿고 풀면 C·S가 T·S인 줄 착각하고 ④번을 선택하고 넘어가 버리겠지. 개념에서도 배웠지만 T·S는 상대적인 거야. 뒤에 'Unfortunately,'가 나오니 뒷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야 해. 이 부분이 T·S인 거지. 왜냐? 뒤에 'One of the reasons~'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을 시작하잖아.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뒷부분에 나오는 부연설명에서 사용된 단어를 이용하는 거야. T·S를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K·W인 '판다'가 없는 선택지 임에도 불구하고 'forest', 'cut down'을 듣고 ③번(무분별한 삼림 개발의 위험성)을 고르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실력이지.

(4) 정답: ①

W: Hello, everyone. I'm Jane O'Connor, president of the Sunflower Gardening Club. I'd like to invite you to our club. Even if you have no gardening experience, don't worry. You can learn from our experienced members. Our club meets every Thursday in the Sunflower Center's greenhouse. And we have two events each year. The flower show takes place in April and the vegetable show in August. There's a membership fee of 20 dollars a year. When you sign up, you'll receive a club T-shirt. Also, members receive a 15 percent discount on vegetables at the Sunflower Center. Become a member and enjoy gardening with us!

T·S에 답이 나왔어. 쓸데없이 계속 듣다가 'vegetable'을 듣고 ③번? 'receive T-shirt'를 듣고 ②번? 'membership fee'를 듣고 ⑤번? 이러다가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지. 계속 강조하는데 T·S가 나오면 그냥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

(5) 정답: ④

M: Hello, everyone. I'm Tom Johnson. I'm an activity coordinator at Discovery Adventure. I'm pleased to invite 20 lucky people to join us for this year's adventure. If you join, you get to discover some of Costa Rica's fascinating secrets for eight days. Every day, you will have amazing experiences. For example, you'll hike the foothills of one of the world's most active volcanoes and work alongside wildlife experts to protect endangered sea turtles. Also, you'll learn how to cook traditional food from local villagers. Registration begins on December 1st and the selection process is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Just visit www.discoveryadventure.com and submit an online registration form. The participant list will be posted on our homepage. Hurry up and don't miss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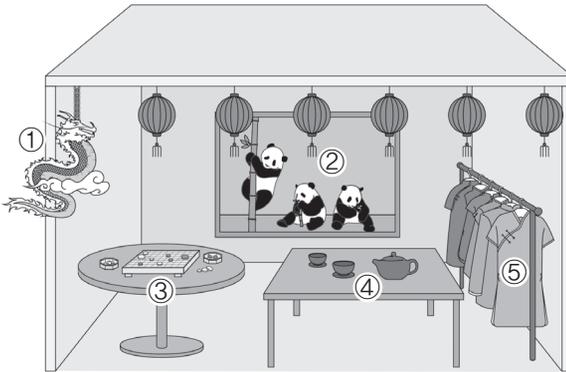
T·S를 들었으면 제발!! 넘어가!! 아, 화난 건 아니야.. ㅎ

연습문제 16 해설 (문제 p.141~146)

빠른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④ (5) ④ (6) ⑤ (7) ⑤ (8) ⑤ (9) ④ (10) ④

(1) 정답: ②



- ① #왼쪽, #용
- ② #중간, #벽, #3마리
- ③ #둥근 테이블, #장기
- ④ #네모 테이블, #컵, #주전자
- ⑤ #옷걸이, #중국 옷

M: Sophie, I see you've almost finished setting up your booth for International Day.
 W: Yes. I've just finished hanging up these round lanterns.
 M: They look pretty. And you hung up a dragon lantern on the left corner.
 W: I did. Dragons have a special meaning in China.
 M: I heard that. Oh, you've got a lot of traditional Chinese clothes, too.
 W: Visitors can choose one they like from the hanger and try it on.
 M: Sounds interesting. Is that picture at the back the Great Wall of China?
 W: Yes. Isn't it eye-catching? I thought of putting up a picture of pandas, but I changed my mind.
 M: I see. What's that on the round table?
 W: That's a Chinese board game. On the other table, there's some Chinese tea. Do you want to try some?
 M: Sure, thanks. I like these Chinese teapots and cups.

이 문제는 그림 일치 기출 문제 중 유일하게 언급되는 순서가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야. ①→⑤→②→③→④ 이런 순서야. 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이고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②번이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시제만 유의했다면 맞힐 수 있었을 거야. 여자는 팬더 그림을 넣으려 생각했었지만 마음을 바꿨어.

(7)~(9)번은 2014학년도 6월, 9월,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이야. 이 때 영어영역은 정말 어려웠어. 원점수 1등급 컷이 차례대로 95점, 92점, 93점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듣기도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 앞에서 푼 문제들과는 약간 다른 점들이 있는데 각 문제에서 설명해 줄게.

(7) 정답: ④ / ③

W: **Today I'd like you to start by imagining that suddenly all written language has disappeared and that no one knows how to write. What would happen to your classroom or your neighborhood? Life would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rough the ages, human beings have made countless important inventions, like the light bulb that turns darkness into light, the airplane that enables air travel, the microscope that shows us the structure of the smallest things, and the telescope that helps us see other worlds. These are amazing accomplishments, **but none of them is better than writing.** When writing was invented, human beings had found a way to write their stories. Ideas and facts could be preserved, and discoveries could be passed on to others. With the invention of writing, humans could hold on to their history and look back on it in the future. With the invention of writing, the modern world became possible.

(7)번 문제에서 특이한 점은 선택지가 한글이었다는 거야. 난이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선택지가 영어라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들리면 언급됐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한글로 된 선택지는 상황이 달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약간 멘탈이 흔들리지. 특히 현미경과 망원경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영단어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약간 당황했을 거야.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③ 전화기여서 정답을 고를 때 큰 문제는 없었을 거구. 선택지가 한글로 나오게 된다면 미리 영단어로 고쳐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해.*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나열 방식이야. 다른 문제에서는 'First', 'also' 등을 이용해서 띄엄띄엄 나열을 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한 문장에 나열을 해버렸어. 이런 경우에 미리 한글 선택지를 영단어로 생각을 안 해봤다면? 어버버 하다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조심할 수 있도록!

* 이 부분은 IV.미리보기에서도 언급할 거야.